



물까지 씻어 먹어야 하는 세상에서

홍정선 ('문학과 사회' 편집위원/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리나라에는 유달리 물에 관련된 말이 많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속담이나 관용적인 비유어의 상당수는 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의 어떤 속성이나 상태, 혹은 생명체와의 관계에서 나온 “칼로 물베기”, “제 눈에 물대기”, “물 찬 제비”, “물 끓듯 한다”, “물 불을 안가린다”, “물 뿌린 듯하다”, “물 샴뼉 없다”, “얕지른 물이다”, “물에 빠진 생쥐같다”와 같은 말은 비유의 단계를 넘어 일상대화에서 흔히 사용될 정도로 관용화된 말이다. 그런가 하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에 빠진 놈 구해 놓으니 붓집 내 놓으라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흐린다”, “물 퍼런 것도 잘 보면 여러가지다”처럼 인간들의 어떤 행태를 경계하는 속담들 역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물에 대한 말이나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폭넓게 사용된 것은 아마도 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몹시 흔한 사물에 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물 중의 하나였다. 물이,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흠이나 공기처럼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 “물 쓰듯 한다”는 말을 만들었던 것이다. 물은 아무리 함부로 낭비해도 사방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쓰듯이 물을 써도 아무 상관 없었다. “세상에 물 씻어 먹는 나라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한 말이다. 어디에서나 그냥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물 씻어 먹는 나라 없다”는 말

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씻지 않은 물은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몇 차례씩 걸러 놓은 한강의 수도물도 다시 한번 집에 설치된 정수기로 씻어 먹어야 하는 세상이 되고 보니 겨울철에 한강의 얼음장을 깨서 빙고에 보관했다가 먹었던 이야기도,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이야기도 이미 전설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물의 어떤 속성이나 상태, 혹은 생명체와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주목하면서 지혜를 발동시켰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직접 물과 부딪치며 물의 모습에서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 즉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문적 교양을 일상언어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연암 박지원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이며, 그가 하루 밤에 같은 강줄기를 아홉번 건너는 난리를 겪으며 남긴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라는 짤막한 글은 아마도 물에 대해 쓴 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글의 하나일 것이다. 그는 물의 속성과 상태에 주목하면서 사물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 지식의 상대성과 주관성에 대해 서양의 어떤 철학자보다도 쉽고 평이하게 핵심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물의 소리와 모습을 관찰한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루는 내가 문을 닫고 누워서 그 물소리를 이것저것과 비교해 가면서 들어 보았다. 우거진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 같은 것은 우아하게 들리고, 산이 찢어지고 벼랑이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것은 웅감하게 들리고, 못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소리 같은 것은 교만하게 들리고, …… 종이 문풍지가 바람에 우는 소리

같은 것은 의아하게 들렸다. 어느 것이나 다 제 소리를 올바르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그런 소리로 들렸을 뿐이었다.

박지원은 한 때 산 속에 살면서 계절과 기후에 따라 뒤바뀌는 물의 온갖 모양을 보고 여러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그러한 물의 모양과 소리는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물의 그러한 현상적 변화를 두고 우아한 소리니, 용감한 소리니, 의아한 소리니 하고 가지 각색으로 규정하는 우리 인간들의 인식은 객관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에 의하면 "소리와 빛은 사람의 마음 밖의 것인데, 이 사람의 마음 밖의 것이 항상 귀와 눈을 번거롭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보고 듣지 못하게 할 따름이다." 그가 현상에 집착하는 삶을 두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강물보다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바로 병이 되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지원은 물의 소리와 모습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어느 것이나 다 제 소리를 올바르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런 소리로 들렸을 뿐"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한 인간들의 정서와 인식에는 관찰자 자신의 관점(주관성)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야 도(道:진리, 혹은 사물의 본질-필자 주)란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구애되지 아니하는데,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더욱 힘써서 그것이 더욱 병폐가 된다"라고 말이다. 그에 의하면 이치(理)도(道)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가 〈일야구도하기〉에서 눈 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대한 탐구보다 그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우리말의 경우나 박지원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우리민족에게 있어 물은 일찍부터 인문학적 상상력의 중요한 발원지였다. 물론 물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생명의 원천이며, 세월의 흐름이고, 인간을 부드럽게

감싸는 모성 그 자체라는 원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럼에도 물은 우리민족에게는 특별히 저 고대의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부터 정지상의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을 더 할 뿐인데" (別淚年年添綠波)라는 탄식을 거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샘이 깊은 물'이나 황진이(黃眞)의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맑고 푸른 물이 늘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누구나 가장 쉽고 편하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불란서의 유명한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상상력 이론 잘 말해준다. 그의 상상력은 물, 불, 공기, 흙의 4원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인문학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사물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박지원의 지혜를 빌어, 아니 흉내를 내어 나도 이제는 젊은 시절에 미처 몰랐던 박재삼의 다음 시 구절의 의미를 알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은 찻찻하기 짝이 없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위의 시에서 '산골 물소리'가 청춘의 첫사랑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격정의 모습이라면 하류의 물소리는 그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이면서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의 모습이라. 젊은 시절의 주체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강심에 녹여 감추고 흐르는, 그리하여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죽은 가을 강"의 모습을 나도 이제는 처음으로 깨달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옛날의 그 흔했던 물마저 이제는 씻어 먹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물을 빼앗겨 물에 대한 나의 정서적인 깨달음, 나의 이미지마저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찻찻하기 짝이 없다. ●